



- 1、教会에 革新을
- 2、社会에 變革을
- 3、世界에 所望을

## 광 복 절

광복절은 한국민족이 국권을 회복한 날이요, 새로운 한국이 건설된 탄생의 날이다. 옛날 이스라엘민족이 애굽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방되어 나왔을 때 민족전체가 기뻐하였던 것과 같이 아무리 기뻐하여도 만족하지 않을 만한 역사의 위대한 해방이다. 미치듯이 기뻐해도 용서받을 만한 날이다.

국가의 광복은 민족의 광복이요, 민족의 광복은 자주성의 광복이다. 민족의 자주성이 완전히 회복된 날이다. 우리의 민족적 자각 하나님앞에 생의 근원적인 섭리로서 한국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자각과 감사와 근지를 완전히 다시 가져야 한다. 오늘의 광복을 바라고 피흘려 순서한 수많은 독립지사의 영령앞에 우리는 마음속 중심깊이 삼가히 새 자각을 가지고 이 역사속에서 한국인으로 당당히 살아 나가야 할 것이다. 세계상에 엄숙한 민족의 존재의식을 또는 존재가치를 다시 높여야 한다.

금년에 맞이하는 광복절은 특별한 의식과 전망을 가지고 맞이하여야 한다. 미국과 중공이 접근하여 가는 요즈음 세계정세에 따라 남북통일의 기운이 급속도로 익어져 간다. 1971년은 격동의해로 세계가 무엇인가 세계에 대변동이 생겨날것을 예감하였던 바 과연 돌연한 미국 닉슨대통령이 모택동을 방문하겠다는 뉴우스에 세계는 놀래면서도 예기한바 있음속 급속도로 중공의 국권승인 세계의 두조류의 접근의 기운이 조장해 간다. 이에 호응하듯 8월11일에 김일성은 해외조선동포통일회의를 미국에 있는 조선민주주의통일전선의 고 병철에게 편지한것으로 12일에는 한국적십자사사장 최두선총재가 북한적십자사사장에게 제네바에서 남북

분리가족문제로 회담할 것을 제창하여 한국의 통일적 움직임을 대표한 것 또는 신민당 김대중의 통일주창등 세계의 강한 대조류의 흐름은 한국의 통일을 촉진하고 있는 듯하다.

재일 한국인 61만은 이대로 가던 일인에게 더욱더 차별과 멸시를 당하는 동시에 통일과 건설의 발전도상에 오르게 될 모국에서도 일본에 사는 우리를 뒤떨어진 존재로 팔세를 당 할것이다. 호소할배도 없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특수한 교아의

존재로 돌리지않을까 두렵다. 특수한 존재적 핑계로 일본땅에서 소극적인 생활태도로만 나날의 생활에 골몰하고 세계에 시야를 높이하지않고 살면 나날의 생활과 시간의 집적이 우리를 날로 퇴보에 몰아가게 된다. 한국인으로서 일본땅에서 사는 유리조건도 이용하여 세계적인 향상과 질적가치를 높여 조국의 동포보다 미국에서 사는 동포보다 오히려 일인들보다 우수한 존재가 되도록 노력과 노력으로 일깨어나가야 한다. (전)

## 문 서 주 일

—총회 문서활동에 최선을

기하여 9월5일 주일로—

총회 문서위원회에서는 수차 회의를 소집하여 근일의 문서활동의 중요성과 우리의 책임을 진지하게 느껴 토의한 바 있어 복음신문의 편집체신과 이용가치를 높이는 대책을 세우는 동시에 가정문서선교회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할 것을 기하여 본부총무에게도 호소한 바가 있었다 한다. 총회가 전체적인 관심을 문서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9월5일을 문

서주일로 정하고 총회산하의 모든 교회가 그 날을 문서주일로 지키게 하였다 그 날 예배설교를 문서전도와 문서활동의 취지를 주제로 하여 교인전체에게 문서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자는 것이다. 예배시 특별헌금을 바쳐 문서사업 특히 복음신문구독료를 대신하는 재정원조를 각 교회에 호소하면서 통일적인 협력을 구하자고 한다.

## 제 8 회 총회 직원회 개최

헌법개정안 인사건

KCC운영등 다르고

정기직원회로서 총회직원회가 7월23일 오전11시정각에 KCC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캐나다 유

학을 마치고 귀임한 총회서기 김득삼목사가 보고와 귀임인사를 하였다. 모국후원회활동으로 일개월간 본

국을 방문한 위원중 김덕성목사가 대표로 보고 하였는데 각 교파별로 모금활동을 하기로 되어 이번에는 예정합동측 교회만 순회하였다는 것과 8월15일에 영락교회에서 500만원목표로 헌금하도록 결정한것 여러노회가 또한 광복절주일에 헌금하겠다는 것 또한 모국각교파가 일본선교회를 위하여 선교사를 파견하는데 구체화되었다는 보고를 하였다.

이인하목사로서 총무부 전반보고를 하였는데 캐나다 선교부총회 참석보고와 WCC프로그램과 미국교회로서 KCC활동을 위한 헌금보조요청을 수락하여 검토하기로 되었다는 것 일본NCC가 주동되어 일본교회에서 KCC위해 모금하기로 되어 있다는 것 캐나다유학생에 대한 캐나다선교부의 의향에 관한것 등의 보고를 하였다. 유석준장로가 KCC건설상황을 보고 하였다 한다.

각국보고와 각위원회 보고가 있는 후 다음과 같이 토의 결정을 하였다 한다.

### 1.헌법개정안

제26회 총회시 헌의가결된 헌법개정안을 헌법수정위원회에서 성문화한 것을 장시간 심의토의하여 27회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한다.

### 1.인사건

무목교회인 岡崎교회와 福岡교회에서 초청한 교역자들에게 관하여 본인의 의향에 따라 허락하기로 하였다 한다. 본국감리교 총교회에서 일본선교사로 김덕화목사를 파견하는 것을 받기로 한다. 미국연합장로교회에서 영어교사선교사를 민족학교에 파견한다는 것을 받기로 했다 한다. KCC모국모금을 위해 김덕성 오윤태 홍영기 정인수 최창화 4목사를 여름에 파송하기로 한다. KCC활동의 스태문제로 그 본질을 다짐하였다 한다. 총회내 재정정책에 관하여 토의가 있었다 한다. 9월21일에 열리는 NCC선교회에 파견하는 대표를 전도국에서 인선하여 보내기로 한다등 총회전반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한다.

## 여전도회 하기수양회

판서지방 주재/남의 집도 지사

마쳤다. (여전도회교육부)

### 교역자 연수회

매년 7월에 열리는 재일 대한기독교교회의 교역자 연수회가 7월20일에 개최되었는데 평균23명 남녀교역자가 참가하였다. 원래 교역자연수회는 일년에 한번 교역자전체가 모여 친목과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동시에 목회제반에 관하여 동역자끼리 기도하여 상향을 나누는 목적으로 열리어온 것이다.

금년은 총회의 과제로 되어 있는 헌법개정문제와 KCC건설에 관한 상황과 근일일어난 청원회내문제들을 공식으로 토의되기전에 교회의 목회담당자인 교역자끼리 기탄없는 의견들을 나누게 되었다.

지난 7월21일부터 23일까지 和歌山市内に 있는 七洋園旅館에서 판서지방의 여전도회 하기수양회를 가졌다. 참석자 60명이 모여서 은혜 많은 집회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강사는 김호식목사 안영준목사 그리고 박수연선생의 강연과 음악을 배우고 「나를 따라 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것을 만족하지않고 자기집도 무거우나 적극적으로 남의 집도 질수 있는 성도가 되기 기도하며 새로운 전진에 이바지하는 여전도회가 되기 결심하였다. 70년대에 사는 우리가 열심히 모이는 것과 나가서 일하는 것을 서로 각성하여서 각 교회에서의 활동을 기대하여 이집회를



여전도회 9월 월례회를 위하여

## 영혼의 양식

이사야 43:1~7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저

위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조물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명예스러운 일인지요. 감식 있는 사람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볼 때 「그것은 과연 그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림가운뎃는 그런 사람의 천재적인 능력과 아름다움이 날날이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우리의 진실된 마음가짐과 정직하고 착한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만물의 놀라운 신비와 아름다움속에서 전능하신이의 영광은 인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의 현실생활을 바라볼 때 슬픈 느낌에 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끄럽고 누추한 일들로 차 있으며 아무런 영광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목적을 변치 않으십니다. 그 놀라우신 창조의 성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속에서는 파괴되고 타락된 인생들이 다 재생할 수 있습니다. 굶은 것은 바르게 방향하던 영혼이 바른길로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익히 아시고 그대도 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만 그를 힘입어서 내 자신이 새로 와 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깨워지며 내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와 내 이웃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충성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 ×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감사

하옵니다.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삼라만상이 무성하는 이 계절에 아버지의 못자녀들이 더욱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부족 하나마 저희를 부르시고 힘 주시며 쓰시옵소서. 이 온 땅우에 주님의 높으신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 멘》

「알림」 이번 10월5일(火) 6월(水); 양일간 福岡교회에서 여전도회 전국 연합회 제23회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부디 뜻 있는 모임을 함께 이루도록 여러분의 정성어린 기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총무 이영숙

## 복 음

堺教会 尹宗銀牧師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방책에는 세가지 면이 있다.

A) 하나님의 활동과 우리의 활동과의 일치——하나님의 선교의 형태

B) 하나님의 바라보고 령하신 일——하나님의 선교의 목표

C) 그리스도의 생활에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여——하나님의 선교의 능력 등은 현실에 있어서 분리할 수 없는 면들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5:12~27에서 볼수있다.

D) 선교의 형태

그리스도안에서 제시된 생활양식에 따라 만들어진 제자들의 생활을 위한 요구는 요한복음 15:12~14에서 설명되고 있으며 전체적 흐름속에 저류로서 흘러내리고 있다. (요한복음 15:18,20,27). 제자들의 생

활양상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지상생활속에서 나타냈던바와 똑같은 생활양상이 되어야 할것이다. 예수의 생활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의 형태는 우리의 날마다 잊어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선교방책을 재인식케 하는 원천이 되고있다.

그리스도의 지상생활에 있어서 사용되었던 생활의 기본적인 방식은 광야의 시험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눅 4:1~13). 예수께서 세례받을 때에 하늘로 부터 저가 메시아라는 엄숙한 선언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으랴의 큰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하여 성령에게 이끌어 광야로 나아갔다. 그 시험은 예수에게 선택목적을 소개하고 있다. 즉 인간의

기본적 빈궁중의 몇가지를 직접 습격함으로써 세상을 구원할 신적 능력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1)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눅 4:5). 이것은 곧 굶주림의 문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보라는 시험이었다.

2)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네것이 되리라」 (눅 4:5,6,7).

그 시대 사람에 있어서 세상 모든 제도는 천사적인 힘아래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의 선교사업의 시초에 있어서 세상의 정치적력과 군사력을 장악하여 지배한다면 그의 선교사업의 성공은 빛을 보는것과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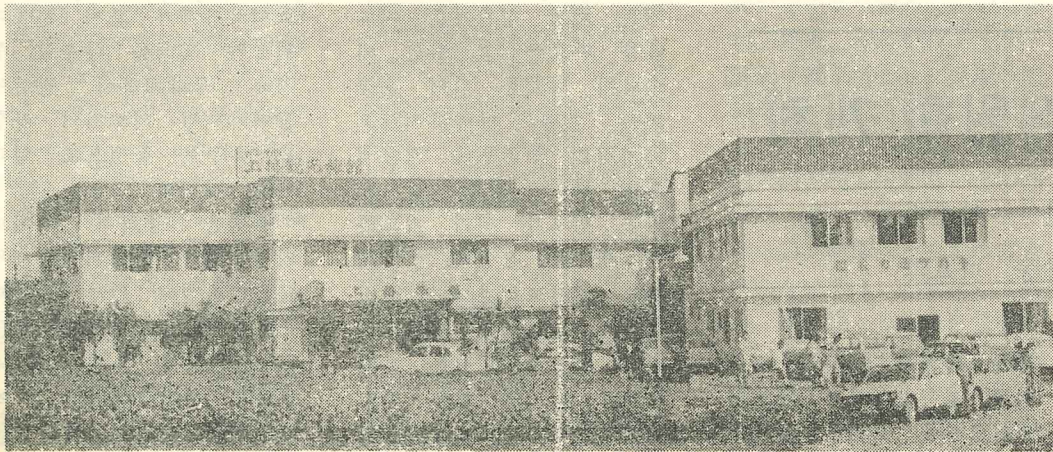
3)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 내려라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라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눅 4:9,10).

이 시험에는 아주 극적인 매스컴유니케션 (mass Communication)의 기판을 통하여 초자연적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민으로 납득하게 하라는 사람이 있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예수는 이 세가지 시험 경제문제 정치이용 매스컴유니케션기관등을 직접 해결하고 이해함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암시를 전부 거절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말아야 한다. 예수께서 「종교」를 이 「세상」적 관점에서 절연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교회가 경제 정치 매스컴유니케션의 선전에 빠져서 이용당해서는 안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예수는 결코 인민의 굶주림에 무관심하지 아니하였다. 그 증명은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실에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자들에게 기쁜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포로된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자들에게 눈뜨임을 선포하며 눌린자들을 놓아주기 위하여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선언함으로 그의 공적 생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예수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경제문제와 정치문제에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또 마리아의 찬가에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자들을 흠으셨고 권세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자들을 높이셨고 주리는 자들을 좋은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눅 1:51~53) 하였으니 이 말씀 역시 정치문제와 경제문제가 아니고 무엇이었는가.

또 많은 무리를 자기에게 부르시고 종려주일에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분이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하는 종이되기 위하여 매스컴유니케션의 필요성을 무시하거나 거절한 것은 아니었다.

(계 속)



## 教会の集会などにご利用を

教会の皆様には一泊2食付、サービス料などすべて込みで、¥1500.-です。  
「ヘルストロン」保健装置を無料でご使用できます。  
また、このルームにはキリスト教書籍を設置。

在日大韓基督教會 指定旅館

# 上 椿

代表者 金 京 秋

和歌山県西牟婁郡白浜町椿  
電話 富田 (073991) 445~6  
大阪案内所 大阪市北区曾根崎町2-21  
電話 大阪 (06) 341-2162



# 福音は民族の帰属性と共に

## 全国青年修養会

全国青年修養会は、主牧孟哲輝牧師（船橋）主題「われわれの教会の反省と展望」（発題李仁夏牧師）のもとで8月3～6日迄の3泊4日間にわたって、恵那狭（岐阜県）の雀のお宿キリスト教会館にて行なわれ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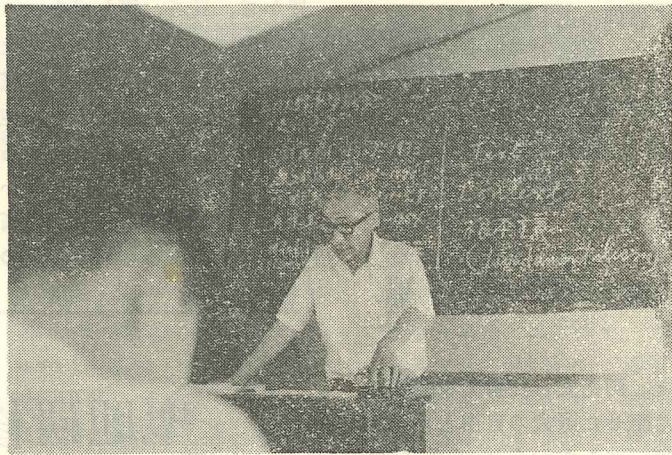
本年は修養会の直前に代表委員をリコールするという前例をみない事態が起こったので、運営に支障をもたらすのではないかと心配していたが、なんなくスムーズに終わることができた。かえってこの様なことがあったために教会青年の進むべき道は、韓国人としての自覚をもち、奪われた民族意識を取り戻さなければならない。そして、帰化、同化への安易な逃道へ進むもうとする傾向を正しく導びかねばならないという意見が全体的な傾向となった。

まず3日、午後3時半より孟哲輝牧師による開会礼拝、4時半より李仁夏牧師（川崎）から修養会主題である「われわれの教会の反省と展望」についての発題があった。その中で李牧師は、在日大韓基督教会の成立から現在迄の歴史を説明し、現在迄の教会は前後関係（Context）を考えず福音（Text）を伝え、又行動してきたために一般社会と一体になって進めず、教会の内と外という壁を同胞社会との間に作ってしまったという反省と共に、展望としては時代が絶えず動いているので「これだ」という確信をもっては言えないが、①在日大韓基督教会は民族の帰属性を持つ使命があり、②差別に対して解放の使命があると言われた。

聖書講義は、後藤光一郎先生（東大講師・宗教史）による「出エジプト記」を先生の立場から歴史的な解釈を講義された。その後、中央委員会報告があり、「何故、代表委員をリコールしたか」の理由を金哲顕兄が述べた。

（※くわしくは燈台20・21号を参照）

理由としては燈台19号「主題についての見解」に代表委員として好ましくない内容、つまり「帰化・同化を促かすような文章」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これに対して前代表委員であった崔勝久君が



（李仁夏牧師による主題講演）



（全体討論会）

ら「自分としては決して帰化・同化を促がしてはいない」ことを強調し、「朴君を囲む会」において朴君に民族意識を持たせようとしているなど、結局は中央委員達と進む方向は同じであると反論した。

分団は6つに分かれて副題「差別社会の克服に向かって」のもとで、A差別社会を知ろう（金哲顕）B家・結婚について（崔秀賢）C入管法・法的地位について（金秀男）D民族教育について（羅曾男）E職業について（金明植）（名前は発題者）という5つのテーマのもとで各々討論された。

最後の6日には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があり、李仁夏牧師・金勇聖・金京子・呉朝日の4人のパネラーを前にして活発な討論が行なわれた。

はじめに各分団の報告、次い

で全体討論では、在日基督教会においては、「信仰」と「民族」問題を切り離して考えるべきではないという意見と、民族問題をあまり重要視すると「第二の韓青」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意見があった。総会に対しての質問中に、今年の総会において「組織機構改変」について話し合われるが、今迄あまり「局」が多すぎたので質的にその働きが完全に消化されずにいる感がある。そこで「伝道局」「社会局」「教育局」の3つにし今迄の青年局は教育局の中に編入されるという、李仁夏牧師の話しに対し、青年からは「青年局」を教育局の下におくのは好ましくないと反論があった。

その後、昼食を済まし、1時半からの孟牧師による閉会礼拝で修養会は終わった。

## 斗争の神学 - 9 -

岐阜教会牧師

金 承 俊

私たちは、今日、大変な時代に生きているということを

痛感せずにはおれない。信者を考えて見ても、教会

生活と社会生活という二領域の間を往たり来たりするか、さもなくば、両立するようであり乍ら、心の中では、分裂に悩む姿が痛ましく思われる。私たちは、今という時代にあっても、聖書は靈感によって書かれた神の御言であって、御言と共に働き給う御霊の働きの助けなしには、何の効力も、感動も在り得ず、一国の文学か、昔話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を信じている。しかし、現実の国家、社会、個人をじっと観察する時、そこには非常に考えさせられるものを見るのである。

社会も、教会も、或る原理によって影響され、動か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に注目せざるを得ないのである。

それは、つまり、国家とか、社会とか、得体の知れないものに名をつけて、それがあたかも生きて存在しているかのように錯覚して、それらの為に生きるだの、尽すだのと云っては、最も確実で、最も大切な自己を犠牲にしてしまっていることがあまりにも多いということである。大義名分がいかなるものであれ、結局は自分の為であったという、この大切なことを忘れて、無視する所に悲劇があるのではなからうか。

内的な、自己との闘争から出て来るのではない所の、外的な、或る何かの為に自己を殺してしまうということは幻にしか過ぎないのではなからうか。

たとえ、他の為に働き、犠牲となるにしても、自分あつての奉仕である故に、最も無私的に見える愛の働きにしても、逆に云えば、自分の為になっているのではなからうか。

この事を理解出来なかった者たちが、多く悲劇に陥っているのを見るのである。

憐れに思つて助けてやった相手が成功する時、助けた人が、彼をいかに、憎悪し、嫉妬することか。同じ兄弟姉妹であっても、一旦、独立するや、いかに関係が薄くなってしまい、自分達じしんのことしか考えなくなるのか。家族の為に犠牲になった者が結局は、いかに惨めになってしまうことか。結局は、自分の為と同時に他の為になることが一番よいということになる。

国家の為、民族の為に一切を捧げて働くコミュニストにとって、一人孤独になる時、自分は一体どこへ行くのかと

いう痛烈な問いに悩まされ、苦しめられるに違いない。信者が時に陥る誤りは、他の為に自分が教会に出てやり、他の為に捧げ物をしているかのように思うことである。

これらは皆、自分の為であり、自分の救いの為なのであって、これを度外視して、他の為にやっていると思う所に、傲慢さがあるのである。もっともっと自分の為に一生懸命に闘い取って行かね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だ。そして、それが、同時に他の為になれば幸いだという訳である。

富者はよく、偉そうにしていると云われる。力のある者はそう云われる。しかし、実際は、実力のない者が彼らをその様に作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る。日本国は、敗戦し、空手で一生懸命、自らの手で働いた時、気が付くと成功していた。すると諸国が頭を下げて寄って来ただけのことなのだ。だから、要は、何事も、この地上に在る限り実力なのであって、実力なしに物云えば、空虚であり、力なければ、物云わずとも自然と影響力を与えずにおれなくなる。こういうように見て来るとあのアブラハムの生き方は非常に示唆に富む。土地の一片たりとも、ただ貰いはせず、金で決済し、徹底的に、主以外は、独立独歩で、やり手で、見込みある者とは契約を結び、敵には、夜襲して成功を収め、決して、奴隷的な生き方は（固着化）しなかったのである。彼はこういう闘争精神に生き抜いた。こういう考えからするならば、奴隷という人間、又奴隷的拘束下にある人間、更に他国に支配されている人間は、それだけの価値しかない存在だということである。他国によって奴隷、拘束、圧迫等を受ける期間が長ければ長いだけ、その国民は、闘争心、独立心が乏しく、そういう状態にしか居る価値のない者なのである。歴史はそのことを示している。

それ故に、過去に虐待されたとして、その事を盾に、いつも他を責めるのは弱者の謂いである。実力を貯えて他をやつけるのではなく、自分達が、奴隷的拘束に縛られる事がないように絶えず、態勢を整えておくことである。愛とは力ある者が無い者に生きる力を示してやる事であって、道無き者が有る者に救すとか、憐れむとか等はマンガである。御霊なる生命の炙を、聖書を通して常に受けて行く事によって私達はかく生きるのである。（つづく）





## 聖 書

## 蛛 の 巣 の 智 恵

第 1 コリント 1:18~25 西成教会 金元治牧師

1. 智慧は人間が自分のもの  
 と思い、又自分が自由に使える  
 ものと思っている。智慧は  
 神より与えられている最高の  
 賜物である。自分の智慧が不  
 足している時に神様に祈り求  
 めれば、神様は惜しみなく与  
 えて下さる、とヤコブは教え  
 ている(ヤコブ 1:5)。この  
 智慧は神の霊に励まされて用  
 いるべきである。使徒たちが  
 宣教と奉仕と施しのわざをし  
 てる時にヘブル語を使うユダ  
 ヤ人やもめとギリシャ語のユ  
 ダヤ人やもめたちへの配給に  
 対する苦情が出た時、聖霊と  
 智慧に満たされた人を選んで  
 この仕事をさせた(行 6:3)。  
 このことは智慧を用いる時  
 に、やはり霊的な充分な働き  
 があって始めて正しく用いら  
 れるからである(ロマ 12:1  
 ~2, 第1コリ 6:5)。

2. ユダヤ人の頑固な程にも  
 神の言に耳を傾けなかったの  
 で、ユダヤ人はキリストの福  
 音にはえん遠いものであると  
 思われたが、パウロはユダヤ  
 人を頑固にしておいて、異邦  
 人を救いに導いてその数が充  
 ちた時にユダヤ人を救うとい  
 う神の計画である、といっ  
 ている(ロマ 11:1)。これは神  
 だけが知っている智慧であ  
 って人間には解らないもので  
 ある。パウロは予言者イザヤの  
 ことば、「だれが主の心を知  
 り、だれが主の計画にあづか  
 ったのか」を用いて、神の智  
 恵には人間の智慧をもっては  
 とうてい計り知ることが出来  
 ない、と強調している(イザ  
 ヤ 40:15~16)。この世の智  
 恵は、神の前では愚かなもの  
 である(第1コリ 3:19)。

3. 蛛の巣の智慧とは、ある  
 人が山道で虎に追われて逃げ  
 道がなく岩の穴にかくれた。  
 その後を追ってきた虎が穴の  
 入口で蛛が巣をつくっている  
 のを見て、人が今この穴に逃  
 げていたら、蛛の巣なんか破  
 れている筈だと思って穴の中  
 へ入らずにあきらめて他の方  
 向へ行ってしまったとの話で  
 ある。なる程今人が入って行  
 く時にこの蛛の巣なんか破れ  
 ていた筈だから人間の入って  
 いない証拠にくもの巣が張っ  
 てであると判断した虎の智慧と  
 して正しかった。しかしこれ  
 は虎の智慧であり、人間の常  
 識である。私たちの智慧はこ  
 の虎の智慧や人間の判断でな

く、それを越えた神の摂理と  
 智慧を信じて神の計画によ

て信仰の道を励みましょう  
 (第1ペテロ 3:15)。

## 光 復 節

田 永 福

第26回光復節を迎えること  
 になり、今一度信仰の場に於  
 て、光復節の意義を考えたい。  
 8月15日は、政治的な事  
 件として歴史の中に、迎えた  
 光復節であって、失われた韓  
 民族の主権を回復した日であ  
 る。それは昔日、パビロン捕  
 囚から故国ユダヤに帰還し  
 て、民族としての自主権を回  
 復したユダヤ民族の歓喜に、  
 勝る民族の喜びであった。年  
 毎にこれを記念し、長い日本  
 帝国主義の圧制に対する憤懣  
 をぶちまける日として、又明  
 日への独立民族として生きる  
 希望を輝やかす日として、こ  
 れを記念して来た。新生国家  
 大韓民国の独立記念日であ  
 る。国を挙げて、祝賀すべき  
 日である。狂喜して、許され  
 る日である。在日韓国人たる  
 者、一人として、この日を祝  
 わない者は無い筈である。何  
 れ程、喜んで喜び足りない  
 日でなくてはならない。韓民  
 族4000年の歴史の中で、最も  
 大きな喜びの日として、祝う  
 べきである。嘗ての苦しみ  
 が、又悲しみが大きかっただ  
 けに、その喜びも大である、  
 何よりも歴史の主の聖前に遡  
 越節の祭壇を築かねばならな  
 いであろう。それと同時に、  
 在日韓国人として、深くこの  
 日の意義を考えねばならな  
 い、光復は只に政治的な光復  
 だけであってはならない。安  
 昌浩先生の主唱した如く民族  
 自体が独立民としての人間形  
 成が出来なければ政治的に、  
 主権を獲得したとしても、民  
 族的に亡国の民となる惧れが  
 ある。とのことを今一度銘記  
 したい。光復は国家主権の回  
 復と共に民族の自主性の回復  
 である。我々一人一人が独立  
 者となるべきである。独立人  
 としての韓国人として、回生  
 すべきである。ラテン民族の  
 諺に「他人の腰にすがって立  
 ち上るより、自分の足で立っ  
 て倒れ死ぬほうがましだ」

と。肥え太った番犬を嘲笑し  
 た瘦せた野犬の自由と自主が  
 貴いことを知らねばならな  
 い。一人の富豪に多くの者が  
 頼りすぎる、乞食根性、依頼  
 心を捨てるべきである。生涯  
 かけて独立独歩の気概を持つ  
 べきである。依存した政治、  
 依存した経済、それは何れ  
 程、繁栄したとしても必竟、  
 肥えた番犬に過ぎない。

韓国人は真に独立民族とし  
 て、自決主義に徹しなければ  
 ば、真の光復節はないのであ  
 る。民族自決は民族の団結を  
 固めねばならない、深い愛族  
 心と固い信頼感に立って、同  
 胞が互に尊敬し合い、愛し合  
 い、信じ合って、結束しなけ  
 れば独立が、又脅かされるこ  
 とになるとも限らない。自滅  
 は自己崩壊から来る。分裂は  
 崩壊を招くのである。最も悲  
 しいことは、在日61万の分裂  
 である。反目し合って、何の  
 光復節であろう。基督が言わ  
 れたように「おおよそ国が内  
 部で分裂すれば自滅してしま  
 い、また家から分れ争えば、  
 倒れてしまう」(ルカ 11:17)  
 )のは哲理である。民族の回  
 復は、民族の文化の回復でな  
 ければならない、歴史は文化  
 を生んで来た。世界で最も長  
 い歴史を持つ韓民族には、そ  
 れだけに、固有の素晴らしい文  
 化が生み出され、形成され、  
 持ち続けられて来た。それは  
 歴史の中に明らかな日本文  
 化の祖をなす程のものであ  
 った。何故、今日の韓国人は、  
 歴史の継承者として民族の歴  
 史を担い、民族の文化を伝承  
 しようとししないのか。在日韓  
 国人が韓国人であることの自  
 覚は、言うまでもないことで  
 あって、韓国人としての自覚  
 すらない者は、処置なしであ  
 る。独立民としての自覚を以  
 て、今日の世界に高貴な韓民  
 族の輝かしい文化を生かし、  
 育み、新しい韓国人の文化を  
 創造して行くほどの意欲を持

つべきである。欧米的なも  
 の、日本的なものを、優れり  
 とし、科学文明こそ、近代文  
 化と誤認するところから脱皮  
 すべきである。韓民族として  
 の素晴らしい精神文化を生活  
 の基調とし、その無限の豊か  
 さを生かして、韓国人の人間  
 的豊かさ、貴さ、美しさを、人  
 格形成に生かして行かねばな  
 らない。世界の政治動行に揺  
 り動かされ、自主性すら、他  
 国の思潮に押し流されている  
 ようでは、真の光復節はない  
 ことを、今一度、真摯に自省  
 すべきである。ユダヤ中興の

王ヨシヤが即位して、国家に  
 新しい改革を行った。神殿よ  
 り発見された、神の律法の書  
 を民全体に発布し、この神の  
 言に、真実に生きんとして、  
 全国に令を下して、国中の偶  
 像を壊し、神殿を修築し、外  
 来思想宗教を排して、ユダ  
 ヤ民族としての自主性と文化  
 性を生かし、31年間に、新し  
 いユダヤ王国を打ち立てた。  
 (列王紀下 22:1, 23:25) 韓  
 民族が神の言に聴き従い、真  
 の自主性を生かす独立国民と  
 して、謹んで光復節を迎え、  
 祝いたいものである。

## 聖地研修旅行記(1)

下関教会 洪永琪牧師



今度日本キリスト教史学会  
 が主催した第一回聖地研修会  
 に参加して、私自身生れて初  
 めて、聖地及欧州各国を経て  
 世界一周(北極廻り)の旅を  
 終え無事に帰日したことを光  
 栄とします。その間、諸先  
 生から学んだ事、見たこと、  
 すべてが感激するばかりでし  
 た。ここで私は愛読者の皆様  
 に参考になればと思い、先ず  
 聖地(イスラエル)について  
 書いてみました。

3月21日、午後2時45分、東  
 京羽田を出発して、途中香  
 港、バンコック、ボンベイ、  
 テヘランを経由して、イスラ  
 エルに向いました。最後の中  
 継地であるテヘラン(イラン)  
 )では最近流行するハイジャ  
 ックの予防対策として乗客全  
 員身のまわり一切の厳重な点  
 検を受け、写真機、八ミリ、  
 望遠鏡等みんなとりあげら  
 れ、着のみ着のままである。  
 しかも飛行機は交戦国の関係  
 でイスラエル直行せず遠くト  
 ルコの山脈と雪のタウロス山  
 系に沿って3時間程飛ぶので

ある。だから行けども高原、  
 砂漠、雪に輝く山々、このす  
 ばらしい下界を、残念ながら  
 誰も写真機がなく撮影するこ  
 とが出来ませんでした。こう  
 して3時間ばかり飛んでよう  
 やく機首を南に転じたが、い  
 つの間にか雪も消えて、海岸  
 線が見えた。これが地中海で  
 あると誰かが云う、地中海で  
 あれば、キプロス島が見える  
 はずだ、その通り暗緑色の島  
 の上を飛びながら機首を東に  
 転じていよいよ目的地のデル  
 アビブに着きました。

テルアビブ(TELAVIV)  
 市は1909年に創設され、人口  
 40万イスラエル最大の都市で  
 ある。6日戦争後首都はエル  
 サレムに移転しましたが、外  
 交上は以然として首都であ  
 り、文化と経済の中心地であ  
 る。空港はまだ未完成で、目  
 下工事中でした。いやイスラ  
 エル共和国自体が目下建設中  
 で、何処に行っても、新興国  
 の気迫を感じることが出来る  
 (つづく)